

사회일반

지상갤러리 38 - 조현

댓글 ••2022-12-15 (목)

클콜크게작게인쇄 facebooktwitter 구글



작품 '마라난타(Maranatha) 4-22'

20년 전 우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닥쳤다. 작은 딸의 병이 조현병(Schizophrenia)이라 해서였다. 1972 년도에 이민 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 왔지만,

우리 가족에게 이 문제는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까무러칠만한 현실이었다.
여러 의사와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,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.

20 년 후인 지금, 딸은 우리 식구들 중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와 맑은 미소를 짓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. '주여! 당신의 은혜와 축복이 제 가슴에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차 있습니다.' 지금,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을 '마라난타(Maranatha)' 시리즈로 표현 하고 싶을 뿐이다. '주여! 어서 오시옵소서.'



조현

홍익대에서 조각, 버펄로 스테이트 대학에서 페인팅을 전공한 후 버지니아에 있는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 대학원에서 페인팅으로 석사를 받았다. 따로 개인전(Solo Show)을 해본 적은 없지만, 기억에 남는 것은 버펄로 스테이트 대학 2 학년때(1985 년) '예술(Fine Arts)상'을 받고, 전례 없이 학교에서 부상으로 솔로 쇼를 해준 것과 1999 년에 페닌슐라 파인 아트 센터(뉴퓏뉴스, VA)에서 주최한 인터내셔널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부상으로 솔로쇼를 한 적이 있다. 2004 년에 'Women Artists of the Century in America' 가 선정한 20 여명의 작가에 포함되기도 했다. 현재 워싱턴 한미미술가협회(HMAA)와 KACAL 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.